

# 매스미디어가 학령기 아동의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 시내 초등학교 4, 5, 6학년을 중심으로-

김민지\* · 김진구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현대는 미디어가 극도로 발달한 다매체시대로 24시간 매스미디어에 노출된 채 그 영향권 내에 살고 있다. 특히 오늘날의 학령기 아동들은 매스미디어와 더불어 성장하면서, 의복행동에 있어서도 예전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들이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중대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매스미디어 가운데 TV, 만화책, 잡지, 인터넷을 주요 변인으로 하여 매스미디어와 학령기 아동의 의복행동과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시내 거주하는 6개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지 응답방식으로 총 668부를 배부하여 이중 응답이 불성실한 것을 제외한 총 406부를 자료분석에 이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A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t-test,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 교차분석(Crosstab), GLM(General Linear Model), Duncan test, 빈도(frequency)와 백분율(%)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령기 아동의 의복행동에 따른 매스미디어 접촉정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학령기 아동에게 있어 편이성이 높은 집단은 인터넷 접촉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유행성이 높은 집단은 TV, 인터넷, 만화책, 잡지 순으로 접촉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심미성이 높은 집단은 인터넷과 잡지 순으로 접촉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령기 아동의 의복행동과 매스미디어 상호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학령기 아동의 TV의 이용이 많으면 만화책과 잡지의 이용과 유행성이 높게 나타났고, 만화책의 이용이 많으면 TV, 잡지, 인터넷과 유행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잡지의 이용이 많으면 TV, 잡지, 인터넷과 유행성과 심미성이, 인터넷의 이용이 많으면 만화책과 잡지, 그리고 학령기 아동의 의복행동 중 유행성, 심미성, 편이성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학령기 아동의 의복행동과 매스미디어를 통해 본 의복에 대한 관심도와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편이성이 낮은 집단, 유행성, 심미성, 동조성이 높은 집단일수록 매스미디어를 통해 본 의복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학령기 아동의 의복행동과 매스미디어를 통해 본 의복에 대한 구매경험과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유행성과 심미성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매스미디어를 통해 본 의복의 구매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령기 아동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접촉하는 매스미디어와 의복행동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 접촉하는 매스미디어 종류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자 어린이가 남자 어린이보다 TV와 잡지의 접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남자 어린이는 여자 어린이보다 만화와 인터넷에 더 많이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별, 학년, 한달 용돈에 따라 학령기 아동의 의복행동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성별에 있어서 남자 어린이는 여자 어린이보다 편이성을 중요시한 반면 여자 어린이는 유행성, 심미성을 중요시하였다. 학년에 있어서는 6학년 학생들이 4학년 학생들보다 편이성, 유행성, 심미성, 동조성 모든 항목을 중요시하였으며, 한달 용돈에 따라서는 한달 용돈이 1만 5천원 이상인 집단에서 유행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매스미디어(TV, 만화책, 잡지, 인터넷)와 학령기 아동의 의복행동과의 관계를 밝혔는데 그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특히 그동안 연구되지 않았던 만화책, 잡지, 인터넷을 중심으로 학령기 아동의 의복행동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매스미디어의 역할증대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아동들의 의복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